

“판 흔들어야 승산”...민주 경선 ‘反이재명 연대’ 불붙나

예비후보 등록 첫 날 단일화 카드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어 가겠다”
군소후보들 합종연횡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비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 세력을 키우면 대권 주자간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28일 여의도 한 국거래소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첫 날부터 단일화 카드를 던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예비경선과 본 경선이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날 발표는 “판을 흔들어야 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해 민주 정부 4기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도덕적 품격, 경제력 식견, 국정 능력을 갖춘 좋은 후보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았다”며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의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또 “김대중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염원하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인격과 역량을 깊이 존경해왔다”며 “적통을 부각한 뒤 ‘승리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민주당 적통’을 고리로 손을 맞잡아 친문 중심의 반

(反)이재명 전선 구축에 본격 나선 셈이다. 정 전 총리는 참여정부 때 산업부 장관을 지냈고,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들의 단일화 선언을 계기로 다른 주자들과의 ‘반(反)이재명 연대’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권 주자 캠프 관계자는 이날 “몇몇 대권 주자 진영과 사전 교감을 하고 있으며,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이라 의외의 단일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군소주자들도 합종연횡을 자연스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라디오에서 “결선투표가 된다면 1위, 2위 중심으로 전선이 개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딱딱한(단일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합종연횡이나 정치적 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의 단일화 합의에 대해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공학적 연대 움직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내 지지율 2위 주자로서 당장 후보 단일화 같은 인위적 연대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비이재명계의 중심점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근 지지율이 선전 중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후보 간 연대보다는 독자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일 비대면 영상 출정식 방식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는 이 지사는 성장과 공정, 민생, 미래 등을 키워드로 한 출정선언문을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경선 컷오프서 2명은 낙마...군소후보들 본선티켓 쟁탈전

정·이 단일화 탈락자 +1 아웃
‘존재감 각인’ TV토론에 사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총 6명에게 주어지는 본선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군소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현재 경선 구도는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이낙연 전 대표가 뒤따르고, 나머지 후보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체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8일 ‘컷오프 전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상 본선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5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출마 의사를 피력한 9명의 주자들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이 단일화가 불발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2명이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당 안팎에선 여론조사 지지도 등을 토대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과 함께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중 단일화된 주자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가운데 정 전 총리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본 경선 진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단일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티켓 1장을 두고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돼있다. 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하는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은 첫째도, 둘째도 인지도인 만큼 이들은 남은 기간 최대한 존재감 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여론조사 대상이 대체로 당원들이지만, 당의 불모지 경남에서 정치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표결집을 견인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경선에서 활력을 보여주는 매기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최 지사는 변별력이 있으면 1대 1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TV토론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알리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충청권 유일 대권 도전자’를 자임한 양 지사는 전날 발표한 ‘제2의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공약을 비롯,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남지역 지지세 확산 나선다

내달 2일 전남도청서 정책협약식
하의도 김대중 전대통령 생가 찾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는 등 전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

전남 지역은 아무래도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내고 고향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의 강도 역시 광주에 비해 전남이 약하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1일 출마 선언을 마친 직후, 2일 전남을 찾아 ‘이재명 바람’을 본격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청에서 만나 ‘전남도-경기도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국가균형발전 정책 공조는 물론 초광역 사업 협력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협약식 직후에는 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현재, 전남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이 지사는 3일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방문한다. 김 전 대통령의 ‘도전과 응전’의 정치 역정을 자신의 대권 도전과 묶으면서 전남 민심의 지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DJ 정서는 아직까지도 호남 민심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이 지사 측에서는 광주에 이어 전남 민심 저변에서 이재명 바람이 확실하게 불어온다면 정세균 전 총리의 고향인 전북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호남 민심의 지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 이재명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면 전북에서도 연쇄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호남의 공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경선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대신 4차례 TV토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최소 4차례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전국을 돌며 정책 등을 토론하는 ‘경연 방식’도 일부 대선 후보 진영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28일 첫 회의에서 이

런 일정을 논의했다고 이소영 기획단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TV토론을 2회 가장 계획한 것을 4회 이상으로, 최대한 많은 횟수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TV토론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은 회의에서 “혁신과 흥행, 2가지가 당면 과제”라며 “변화 측면에서 국민

높이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땐 기획단장으로서 어느 때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0일까지 74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74일 뒤 지금의 지지율이 낮설 정도로 역동적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 달 11일 예비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출마자는 9명으로 예상되며,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여론조사 50%를 통해 본경선 후보 6명이 결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